

女性の排除와 專有*

— 《三言》·《二拍》의 남성 중심적 서사를 중심으로 —

金素貞**

<目次>

I. 서론	2. 專有된 여성
II. 본론	III. 결론
1. 排除된 여성	

I. 서론

《三言》·《二拍》의 여성인물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되어왔다. 하나는 여성인물을 신분과 행동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한 연구이며,¹⁾ 또 하나는 자아의 실현을 주장하는 반봉건적 경향을 띤 여성형상에 집중한 연구이다.²⁾ 전자의 연구는 다양한 여성 인물군을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05-JO6203).

**釜山大學校 人文學研究所 研究教授

- 1) 柳之青, <《三言》人物研究>(臺灣師範大學 碩士論文, 1991); 劉灝, <《三言》·《二拍》一型中的婦女形象研究>(臺灣文化大學 碩士論文, 1995); 林麗美, <《三言》·《二拍》中的女性研究>(中央中研所 碩士論文, 1995); 田國梁, <試談《三言》·《二拍》中幾類婦女形象的社會意義>(《西北民族學院學報》, 1988).
- 2) 5·4시기 지도노선의 영향으로 역사문헌에서 반봉건적 인물을 찾아내어 선양하는 것이 유행하자, 중국고전소설의 여성연구영역에서도 반봉건적 여성형상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王靖芬, <明代白話短篇小說中反禮教的思潮>(臺灣大學 碩士論文, 1994); 張璉, <《三言》中婦女形象與馮夢龍的情教觀>(《漢學研究》第11卷第2期, 1993); 黃玉娟, <《三言》·《二拍》對女性問題的反映與思考>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분류하여 당시 여성이 처한 객관적 상황과 역할에 관한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주제 의식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서술자의 서사논리가 강조하는 여성성에만 초점을 두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한편, 후자는 5.4문화운동 이후 사회주의 부녀해방운동에 편승한 연구 경향으로, 예교질서에 대한 여성의 저항과 비판적 목소리를 고전소설에서 찾아내어 대중적 담론으로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와 동시에 문학연구의 시야를 정치운동의 목적아래 두어 지나치게 교조적으로 몰고 가 여성인물의 진정한 가치를 탐구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로 볼 때, 기왕의 연구시각은 여성인물의 표면적 행위에 국한하고, 여성인물을 탄생시킨 작자의 의도를 소홀히 한 결과 전통중국사회의 진정한 여성성을 복원하는데 미흡했다.

근대적 맹아가 대두하여 변화와 모순이 속출했던 明末 시기, 이러한 토양에서 탄생한 백화단편소설은 여성인물을 뚜렷한 개성 없는 전형적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明末의 과도기적 시대상황, 그리고 유가의 전통은 본질상 사회변화에 탄력적이며 주체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는 실재하는 여성성을 선택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왜 여성의 진실한 내면의 목소리는 여성인물의 형상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가? 여기에서 기존의 독법에서 중시, 부각되지 않았던 여성인물의 서사관점 — 남성 중심적 서사에 주목해야 한다.

역대로 중국사회에서 남/여성의 성역할에 관한 인식은 陽과 陰의 속성을 바탕으로 표현된다. ‘陽은 움직이고 陰은 고요하며, 陽은 주고 陰은 받아들이며, 陽은 바깥이고 陰은 안이다.’³⁾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는 陽強을 미덕으로 삼고 여성은 溫柔를 미덕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성역할은 남성들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과 결합하면서 여성

(《琼州大學學報》, 2004); 함은선, <《三言》·《二拍》에 나타난 반봉건적 여성意識>(《인문과학연구》제12집, 1992); 陳永正, 《三言二拍的世界》(台北遠流出版公司, 1989).

3) “陽動陰靜, 陽施陰受, 陽外陰內.”(《醒世恒言·第十一卷·小蘇妹三難新郎》)

을 하등한 존재로 규정지었다. 기백이나 기상, 의로움, 굳건함, 호방함, 이성적인 사고 등은 마치 남성들만 지니고 있는 특징으로 규정되었고, 반면에 여성은 그러한 남성적 특징을 결여한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이 억압의 기제 아래 놓였던 상황은 《三言》·《二拍》에서 남성 중심적 서사논리를 통해 반영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여성은 진정한 중심인물로 부상할 수 없었고 실제로 존재하는 여성의 능력과 잠재력은 획일화, 단순화되어 왜곡된 여성형상이 탄생했다. 본고는 여성적 관점에서 작품에 나타난 남성 중심적 서사논리를 밝히고 그로 인한 여성인물 형상화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순조로운 논의전개를 위해 먼저 배제의 기제 아래 형상화된 여성인물을 통해 남성 중심적 서사논리를 밝히고, 다음으로 여성을 독점하여 수단화하는 남성 중심적 서사방식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은폐된 서사논리를 들추어내는 작업은 주체적이지 못한 억압받고 꺾박받는 존재로 인식되었던 중국 근대의 여성 담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II. 본 론

1. 排除된 여성

《三言》·《二拍》에서 여성인물은 유가윤리도덕의 잣대 아래 일률적으로 평가되며 그 평가는 고정된다. 유교윤리교화라는 편찬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들의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 여성성은 배제시킨다.⁴⁾

4) 여성의 ‘적극적 의지’ 혹은 ‘주도적 의사결정’ 등의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서사의 과정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면 《警世通言·第二十二卷·宋小官團圓破氈笠》에서 아내가 발언권을 갖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아내에게 기죽어 살던 劉翁은 宋金을 사위로 맞이하려 할 때, 아내에게 먼저 의견을 구한다. 상인가정의 경우, 아내는 가정의 주요사안에 대해 발언권이 있었으며, 심지어 그녀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자는 이 부분을 강조하거나 혹은 별도의 부가설명을 곁들

여성인물의 행동과 대사는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부각시키려는 서술자의 의도아래 이용되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여성은 생동감과 예술성을 결여한 채 전형화 된 모습으로 존재한다. 서술자의 이러한 의도는 문학 속에서 구현된 유가적 가부장제 하의 남성의 여성억압구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1) 배제된 여성의 욕망

여성을 배제하는 메커니즘 속에는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남성의 종속물로 간주하는 의식이 깔려있다. 남성을 가지에, 여성을 가지에 달린 꽃으로 비유한 아래의 글은 이러한 시각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지는 담장 동쪽에 있고 꽃은 (담장) 서쪽에 있으니,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떨어졌구나. 가지에 꽃이 없으면 다시 피울 수 있지만, 꽃은 가지에서 떨어지면 가지에서 다시 피기 어렵다. 이 네 구는 옛날 사람들이 지은 《棄婦詞》이다. 부인이 남편을 따르는 것을 일컬어 마치 꽃이 가지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고 한다. 가지는 만일 꽃이 없으면 봄을 맞아 다시 피울 수 있다. 꽃은 가지에서 떨어지면 다시 필수 없다. 세상의 부녀자들에게 권고하노니, 남편을 섬김에 도리를 다하고 동고동락하며 평생 한 남편만 따를 것이다. 부를 탐하고 가난을 싫어하여 마음을 달리하면 후회할 것이니 (그러지) 말지어다.”⁵⁾

이지 않은 채 가벼운 언급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 외, 유사한 사례는 《警世通言·第三十三卷·喬彥杰一妾破家》에서 행상갔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첩을 취한 남성 喬彥杰이 정실의 불호령에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대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상인 가정에서는 여성에게 상당한 발언권이 주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남성 중심적 서사논리가 농친 틈새를 통해 아내를 겁내는 남성의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 5) “枝在牆東花在西，自從落地任風吹。枝無花時還再發，花若離枝難上枝。這四句，乃昔人所作《棄婦詞》。言婦人之隨夫，如花之附於枝；枝若無花，逢春再發；花若離枝，不可復合。勸世上婦人，事夫盡道，同甘同苦，從一而終；休得慕富嫌貧，兩意三心，自貽後悔。”(《喻世明言·第二十七卷·金玉奴棒打薄情郎》)

남성의 종속물인 여성은 욕망조차 남성에게 의해 통제되며, 여성에게 허락된 욕망은 오로지 남성이 원하는 것에 국한된다. 따라서 소설 속에는 여성의 욕망에 관한 자세한 묘사나 다양한 시각을 찾아보기 힘들다. 애정을 다룬 작품을 살펴보면 상대남성이 사랑을 원할 때에만 여성의 사랑이 긍정되고 성취될 뿐, 여성이 일방적으로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랑은 죄악 시되고 부정된다. 여성의 애정 욕망조차 남성적 서사논리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작품으로 《警世通言·第三十八卷·蔣淑眞勿頸鴛鴦會》을 살펴보자.⁶⁾ 이 작품은 성적 쾌락에 탐닉하는 당대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쓴 작품으로 여성을 욕망의 화신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다. 蔣淑眞은 아름답고 총명할 뿐 아니라 지수에도 뛰어난 여성이었으나, 술과 풍류를 좋아하고 강한 성애 욕구를 타고난 것이 흠이 되어 아무도 청혼해오지 않았다.

“이 여자 아이는 심성이 좀 괴이했다. 눈 화장을 질게 하고 얼굴에 분을 바르고 입술을 붉게 칠했다. 귀밑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몸에 꼭 붙는 옷을 입고 뽀내며 걸모양을 한껏 내었다. 때로는 난간에 기대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때로는 거리를 향해 웃음을 던졌다.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경멸했다.”⁷⁾

천성적으로 강한 성적 에너지를 타고난 蔣淑眞은 남성들이 요구하는 정숙함에 부합하지 못했다. 남성권위적 문화는 여성의 욕망을 억압했기에 그녀는 성적 에너지를 발산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욕구를 해소시킬 정상적인 통로가 허용되지 않자, 蔣淑眞은 간통을 저지른다. 불행하게도 그녀의 간통은 두 명의 남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⁸⁾ 남성권

6) 그 외에도 《警世通言·第八卷·崔待詔生死冤家》, 《警世通言·第三十卷·金明池吳清逢愛愛》, 《警世通言·第二十八卷·白娘子永鎮雷峯塔》 등이 있다.

7) “却這女兒心性有些蹺蹊，描眉畫眼，傅粉施朱，梳個縱鬢頭兒，着件叩身衫子，做張做勢，喬模喬樣，或倚檻凝神，或臨街獻笑，因此閭里皆鄙之。”

8) 첫 번째는 결혼적령기를 훨씬 넘긴 蔣淑眞이 이웃 사내아이 阿巧를 간통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두 번째는 蔣淑眞이 40세가 넘은 농장주인 李二郎에게

위적 사회가 근원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술자는 모든 책임을 그녀 개인에게 돌린다.

“이 부인(蔣淑眞-필자 주)은 두 남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⁹⁾

사회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자면 阿巧와 李二郎의 죽음은 여성의 성적욕망을 억압하여 왜곡되게 표출하게 만들었던 남성중심적 문화에 기인한다. 阿巧를 간통한 것은 결혼적령기가 되어도 성 에너지를 발산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억눌려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李二郎의 죽음의 원인은 배필을 구할 때 지나치게 미색만 탐했던 남성의 욕망, 그리고 아버지가 딸의 본성을 파악하지 않고 늙은 남성을 배우자로 정해준 것과 관련이 깊다. 그럼에도 서술자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성에 대해 침묵하는 지배적인 담론에 대해 비난의 칼을 들지 않는다. 이는 지배담론이 바로 폭력행위자인 남성에게 의해 주도되기 때문이다. 그녀에 대한 배타적 태도는 李二郎이 사망한 후 친정으로 쫓겨 와서 온갖 질시와 수모를 참아내는 과정 속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 蔣淑眞은 욕망을 억압당한 채 세상의 비난을 혼자 감당해야했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적 사회의 희생물이었다.

물론 서술자의 말¹⁰⁾처럼 욕망을 승화시키는 문제에 주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녀는 도덕적 불명예를 피할 수 없으나, 서사논리는 비난의 목소리를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蔣淑眞을 욕망에 탐닉하는 인간의 전형으로 격상시킨다. 여성인물을 욕망의 화신으로 설정하여 추방시켜 버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체 여성의 성적욕망을 완전히 좌악시키는 효과를 거둔다. 여기에서 여성은 예교교화를 달성하는 유용한 반면인물로 이용되고

시집간 후, 李二郎의 기력이 쇠약해지자 적적함을 참지 못하고 가정교사와 간통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李二郎은 충격으로 사망한다.

9) “這婦人眼見斷送兩人性命了。”

10) “충만함을 지키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 신사숙녀이니 어찌 훌륭하지 아니한가.(若能如執盈,如臨深,則爲端士淑女矣,豈不美哉.)”

있다. 이러한 결말처리를 통해서도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남성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독서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욕망을 억압한 남성적 서사는 여성의 신체를 남성들의 성적만족의 수단으로 묘사한다. 예를 들면, 《二刻拍案驚奇·第三十二卷·張福娘一心貞守 朱天錫萬里符名》에서 朱公子는 고향인 蘇州에서 약혼을 한 뒤 아버지의 부임지를 따라 四川으로 간다. 그는 타향살이에서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고 첩을 들일 계획을 세워 아버지를 설득한다.

景先(아버지-필자 주)이 말하길, “남자가 정실을 들이기 전에 첩을 먼저 들이는 이런 禮가 있는가?” 公子가 말하길, “진실로 그런 禮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 천리 떨어진 타향에 있으므로, 다만 상도를 어기고 변통수를 써서 목하의 적막함을 함께할 반려를 들일 계획을 도모하려합니다. 훗날 정실을 취하게 되면 그녀를 돌려보내도 무방합니다.” 景先이 말하길, “그리해도 되겠구나.”¹¹⁾

公子에게 있어 첩은 성적 무료함을 달래주는 수단일 뿐이었기에, 정실을 맞이할 때 돌려보내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여기에서 첩의 욕망과 인격은 완전히 소외된다. 정실을 버려두고 첩을 먼저 들이는 과정에서 여성은 성적 욕망의 표출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 배제된 여성의 고뇌

明代 사회를 주도하던 지배적 담론에서 여성은 정당한 가치평가를 받지 못했다. 아래의 몇 가지 인용문을 통해 여성은 부도덕하고, 질투심이 강하며, 식견이 짧은 편견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자의 말을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재산을 나누어 따로 살게 하여

11) 景先道：“男子未娶妻，先娶妾，有此禮否？”公子道：“固無此禮，而今客居數千里之外，只得反經行勸，目下圖個伴寂寥之計。他日娶了正妻，遣還了他，亦無不可。” 景先道：“這個也使得。”

오륜(五倫)을 해치게 한다. 아내가 大道를 행한다고 믿지 마라. (그것을 믿는) 남자가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는가!”¹²⁾

“특히 가장 악독하고 가장 교활하고 식견이 짧은 사람이 후처이다. 대개 한두 번 결혼한 사람들도 아니다. 집안이 미천하고 가난하거나, 시집못간 노처녀이거나, 제대로 배우지 못해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로, (그들은) 아주 ‘노련’하다.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사람을 화나게도 하며, 끝까지 달라붙어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 그리하여 가정에서 종종 이 사람들에게 의해 싸움이 일어나 영망이 된다.”¹³⁾

“여인네들의 질투는 칠거지악의 하나로 매우 나쁜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점은 마치 타고나는 것과 같아 고쳐지지 않는다.”¹⁴⁾

“조카는 사내대장부입니다. 어찌 마누라 말에 좌지우지 당하겠습니까!”¹⁵⁾

“대장부는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스스로 공명을 세워야 한다. 어찌 여인네(가 써준) 서신을 이용하여 입신출세를 도모하겠는가?”¹⁶⁾

- 12) “婦人之語不宜聽，割戶分門坏五倫。勿信妻言行大道，世間男子幾多人!”(《警世通言·第三十三卷·喬彥杰一妾破家》)
- 13) “獨有最狠毒、最狡猾、最短見的是那晚婆，大概不是一婚兩婚人，便是那低門小戶、減剩貨與那不學好爲夫所棄的這幾項人，極是“老啣溜”，也會得使人喜，也會得使人怒，弄得人死心塌地，不敢不從。… 所以那家庭間，每每被這等人炒得十清九濁。”(《拍案驚奇·第二十卷·李克讓竟達空函 劉元普雙生貴子》) 남자가 후처를 들여 그녀와의 사랑에 탐닉하여 모든 것을 그녀의 뜻대로 들어주는 사례를 들어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것은 모두 후처의 교활함과 식견이 짧은 것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 14) “話說婦人家嫉忌，乃是七出之條內一條，極是不好的事。却這個毛病，像是天生的一般，再改不來的。”(《二刻拍案驚奇·第十卷·趙五虎合計挑家釁 莫大郎立地散神奸》) 작품 서두에서 여성의 질투심을 천성적인 毛病이라고 지적하면서 고치기 매우 어렵다고 한다.
- 15) 高文明道：“姪兒也是個男子漢，豈絲婦人作主!”(《二刻拍案驚奇·第二十六卷·憎教官愛女不受報 窮庠生助師得令終》)
- 16) “大丈夫倚着一身本事，當自立功名，豈可用婦人女子之書，以圖進身乎?” 이것은 《喻世明言·第十五卷·史弘肇龍虎君臣會》에서 남성우월의식을 가진 郭大郎이 柴夫人이 써준 추천장을 묵혀버릴 때 하는 대사이다.

“자고로 말하길, 가문의 흥함은 전부 (남자)주인의 운명에 달려 있다. 열 명의 여자는 사내 한명을 당하지 못한다.”¹⁷⁾

작품의 지배적 담론 속에서 여성의 능력과 기질은 일괄적으로 폄하되며, 단견, 질투심, 탐욕 등과 관련한 여성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이해의 시선은 허락되지 않는다. 서사의 초점을 사건의 인과관계에 두기보다 사건 자체에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절대 고칠 수 없는 ‘천성적’인 결함을 타고난 불완전한 존재로 폄하된다. 화본소설의 서술자는 여성인물이 속해있는 상황이나 조건, 또는 심리적 동기에 대해 이해와 동정의 시선을 던지지 않고 있다. 특히 첩의 질투심을 화제로 삼아 여성의 부도덕성을 질타할 때 그것과 관련한 남성권위적 문화에 대한 성찰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질투의 문제가 유독 여성의 기질적 결함으로 간주되는 서사논리는 가부장제 하의 남성중심의 처첩제도에 대한 비판을 은폐한데 기인하고 있다.

한편, 明代 남성 지배층이 烈女와 節婦를 숭양하면서 만들어낸 정조담론의 영향으로 《三言》과 《二拍》에서도 동일한 성격의 여성인물 — 節婦와 烈女 등이 형상화되고 있는데, 이들은 뚜렷한 개성 없이 전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서사의 논리와 흐름에서 볼 때, 이들은 남성지배층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남성중심적 서사논리가 의도적으로 가공한 형상에 불과하다. 서사 과정상, 節과 烈의 동기와 관련하여 그것이 여성의 도덕적 의지와 확신에 근거한 것임을 밝혀주는 서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봉양할 어린 자식도 늙으신 부모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과부가 수절을 맹세하는 장면¹⁸⁾,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약혼녀가 수절하는 과

17) “自古道：家中百事興，全靠主人命。十個婦人，敵不得一個男子。” 이는 《警世通言·第二十二卷·宋小官團圓破氈笠》에서 宋敦이 죽은 이후 가세가 기울 때 서술자가 삽입한 구절이다.

18) 이에 해당하는 여성인물로 《警世通言·第十二卷·范鰥兒雙鏡重圓》의 順哥, 《警世通言·第二十二卷·宋小官團圓破氈笠》의 宜春, 《警世通言·第五卷·呂大郎還金完骨肉》의 王氏 등이 있다.

부가 되겠다고 맹세하는 장면 등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모두 억압되어 있다.¹⁹⁾ 이들의 행동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명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작품 내에서 한결같이 칭송받는다. 수절과 관련하여 여성의 고통스런 목소리가 배제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二刻拍案驚奇·第三十二卷·張福娘一心貞守 朱天錫萬里符名》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 張福娘이 정절을 지키며 홀로 자식을 키워내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 고사에서 여성이 혼자 힘으로 자식을 키워낼 때 겪는 고통과 방황 등 내면세계에 관한 심리묘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며, 단지 그녀에 관한 객관적 사실만 열거하는데 그치고 있다.

“福娘은 아들을 낳았고, 가난함을 기꺼이 참아내고 절개를 지키며 재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부모와 마을사람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실을 짓고 바느질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寄兒를 키워냈다.”²⁰⁾

왜 남편에게 버림받고서도 절개를 지키려 하는지, 왜 눈물겨운 가난함을 감수하면서 혼자 힘겹게 자식을 키워내는지,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에서의 개인적 고뇌와 결의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²¹⁾ 여성인물은 행동하는 대상으로서만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

19) 이에 해당하는 여성인물로 《警世通言·第十七卷·鈍秀才一朝交泰》의 六映, 《喻世明言·第二卷·陳御史巧勘金釵鈿》의 阿秀, 《醒世恒言·第五卷·大樹坡義虎送親》의 林潮音, 《醒世恒言·第二十卷·張延秀逃生救父》의 玉姐, 《醒世恒言·第二十五卷·獨孤生歸途鬧夢》의 白娟娟 등이 있다.

20) “福娘既生得有兒子, 就甘貧守節, 誓不嫁人. 隨你父母鄉里, 百般說諭, 並不改心, 只績紡補紉, 自給度日, 守那寄兒長成.”

21) 남편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적인 아내형상은 《醒世恒言·第八卷·陳多壽生死夫妻》의 朱多福, 《喻世明言·第二十七卷·金玉奴棒打薄情郎》의 金玉奴, 《警世通言·第三十一卷·趙春兒重旺曹家莊》의 趙春兒, 《喻世明言·第四十卷·沈小霞相會出師表》의 聞淑英, 《醒世恒言·第十九卷·白玉孃忍苦成夫》의 白玉孃 등이 있다. 이들은 남편이 위기-심각한 질병, 경제적 몰락, 정치적 탄압으로 인한 유배, 전란으로 인한 포로생활 등-에 직면했을 때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과 용기를 준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물론

의 심리적 움직임은 서술자의 시선에서 소외당했다.

다만, 여성의 고통에 대한 동정적인 시선이 간혹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남편이 정실을 맞이하기 위해 福娘을 쫓아낼 때 서술자는 그녀의 심정에 관한 직접적인 묘사를 생략한 채 짧은 평론을 곁들이고 있다.

“사람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서는 안 된다. 평생 동안 온갖 고통과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지어지니 말이다.”²²⁾

고통을 당하는 여성의 내면세계에 관한 묘사는 서술자의 동정적 시선으로 대체되고 있다.²³⁾ 여성의 고뇌의 목소리를 소외시킴으로써 고통을 유발시킨 여성 억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생성되고 확산될 가능성은 훨씬 희박해진다.

여성의 고통을 외면한 남성적 서사논리는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정조를 지키는 열성적인 여성인물을 창조해내었다. 《喻世明言·第二十卷·陳從善梅嶺失渾家》의 張如春을 대표적 인물로 꼽을 수 있다. 陳從善의 아내 張如春은 梅嶺의 요괴에게 잡혀와 수청을 강요당할 때 ‘여성의 절개를 내세우며’ 단호히 거절한다. 이 때 서술자는 그녀의 정조관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먼저 잡혀온 여성 金蓮, 牡丹 등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張如春이 남편과의 사랑이 깊음을 이야기하며 한사코 절개를 지켰다고 강경하게 나오자, 金蓮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돌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여성의 내면세계에 관한 직접적이고 자세한 묘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22) “人生莫作婦人身, 百年苦樂由他人.”

23) 그 밖에, 《醒世恒言·第九卷·陳多壽生死夫妻》에서 朱多福이 모성애를 발휘하여 남편을 극진히 간병하는 장면에서도 여성의 목소리는 서술자의 동정적 시선으로 대체되고 있다. “아내라고 불리는 것이 유명무실하였으니, 젊은 아녀자가 즐거움은 적고 근심이 많은 것이 가련하도다.(喚嬌妻有名無實, 憐少婦少樂多憂)”

金蓮이 말하길, “산 아래의 일을 알려면 다녀온 사람에게 물어라.’ 이 일은 저도 겪었어요. 우리 집은 南雄府에 있고 남편은 부자였는데, 申公에게 잡혀와 동굴에서 5년을 살았어요. 당신이 그의 추악한 생김새를 싫어하는 것과 같이, 당초에 나도 그랬으나 나중에는 익숙해져 잘 지냈어요. 당신이 이미 여기에 잡혀온 이상 어쩔 수 없어요. 그의 말에 따르세요.” 이 말에 張如春은 대노하여, “나는 당신네들처럼 음탕하고 천하지 않아요. 살려고 모욕을 감수하고, 헛되이 살아가는 발칙한 여자 같으니!”²⁴⁾

‘차라리 고통스럽게 貞婦가 될지언정 탐음하는 천한 인간은 되지 않겠다.’²⁵⁾고 주장하는 張如春에게서 개성과 예술적 감화력은 찾아볼 수 없다. 남성적 서사논리는 여성인물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으며, 실재하는 진정한 여성성을 형상화시키는데 미흡했다. 여성의 숨겨진 음성들은 침묵과 어두움으로 점철된 삶을 형상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을 뿐이다.

간혹 여성의 고통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등장하기도 하나, 그것은 진정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남성의 성공을 달성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喻世明言·第八卷·吳保安棄家贖友》는 남성 세계의 友誼와 信義를 칭송한 작품이다. 뛰어난 인재인 郭仲翔이 포로로 감금되자, 그를 일찍부터 흠모해오던 吳保安이 구출해내려고 한다. 구출비용으로 돈이 필요했던 吳保安은 아내와 자식을 팽개치고 집을 나가 소식을 두절한 채, 10년 동안 장사하여 옷감 700필을 마련한다. 서술자는 吳保安의 의로운 기상을 전달하려는 주제의식을 부각시키기 위해 아내 張氏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다. 知己를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는 의로운 정신을 최고의 가치로 숭상하던 남성세계에서 여성은 철저히 배제된다. 물론 아내의 고초에 대한 짧은 묘사가 있지만, 이것조차 남성의

24) 金蓮說：“要知山下事，請問過來人，’ 這事我也曾經來。我家在南雄府住，丈夫富貴，也被申公攝來洞中五年。你見他貌惡，當初我亦如此，後來慣熟，方纔好過。你既到此，只得沒奈何，隨順了他罷。” 如春大怒，罵云：“不似你這等淫賤，貪生受辱，枉爲人在世，潑賤之女！”

25) “寧爲困苦全貞婦，不作貪淫下賤人。”

의지를 달성시키는 보조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張氏가 생존의 위기에서 대성통곡하고 있을 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姚州都督 楊安居가 그녀를 불러 자초지종을 듣고서 吳保安의 의로움에 탄복한다. 그리하여 그는 吳保安을 찾아내어 모자란 300필을 보충해주어 郭仲翔을 구출한다. 결과적으로 張氏의 죽음에 면한 고통스러운 통곡소리는 楊安居의 물질적 도움을 가능하게 했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2. 專有된 여성

남성적 서사논리는 남성의 立身과 애정욕구라는 이기적 목적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여성을 활용한다. 여성이 지닌 지혜와 德, 초월적 도술법, 자아실현의 의지 등은 여성자신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남성을 출세시키거나 남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이용된다. 그것은 여성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그것을 소유한 남성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귀속된다. 간혹 여성의 능력을 칭송하는 구절이 등장하나,²⁶⁾ 남성적 서사논리에서 볼 때 이는 여성을 소유하는 남성에게 만족과 우월감을 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작품 내에서 여성 인물의 능력이나 자질의 발휘는 가족이라는 공간으로 제한되고, 그것이 남성을 매개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점은 화본소설의 문학적 상상력이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이념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6) 예를 들면, ‘속담에 지혜로운 부인은 남자보다 낫다고 한다. 고래로 남자를 능가하는 부인도 굉장히 많았다.(常言有智婦人, 賽過男子, 古來婦人賽男子的也儘多.)’(《喻世明言·第二十八卷·李秀卿義結黃貞女》), ‘총명한 남자는 公卿의 위치에 오르지만 여자는 총명해도 출세할 수 없다. 만약 여성에게도 과거응시가 허락된다면, 여성이 어디 公卿보다 못한 자리에 있겠는가?(聰明男子做公卿, 女子聰明不出身. 若許裙釵應科舉, 女兒那能遜公卿.)’(《醒世恒言·第十一卷·小蘇妹三難新郎》) 등 있다.

(1) 立身을 돕는 보조자

여성의 목소리를 통제하는 남성 중심적 서사논리로 인해 여성성은 획일화되고, 남성의 지배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여성형상만이 긍정된다. 남성적 서사논리는 남성을 격려하고 성장시키는 모성적 기능을 수행하는 여성형상을 탄생시켜 남성을 성공시킨다. 남편가문에 영광을 가져다주고 남편에게 경제적, 정신적 도움을 주는 아내상을 구현하고 있는 義婦와 賢婦 등은 남성의 立身이라는 이기적 목적을 실현하는 보조적 기능을 담당한다. 남성이 경제력과 부덕을 지닌 여인을 만나 가정을 온전하게 꾸려나가는 이야기 속에서 여성은 ‘賢婦’ 혹은 ‘女丈夫’라 칭송받으며, 심지어 조정으로부터 一品夫人에 봉해짐으로써 신분이 상승하기도 한다. 여인은 남편을 헌신적으로 도운 결과 성공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으나, 이는 다른 평범한 여성인물들과 구별되는 것에 불과할 뿐, 변화하는 사회의 새로운 여성상은 아니다.

또한 출세를 돕는 보조자를 소유하는 희극적 결말 처리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남편과 헤어져 살던 여성은 결말 부분에서 남편과 극적으로 상봉하며, 고생스럽게 길러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는 등으로 끝난다. 희극적 결말에는 남성의 이기적이고 실리적 목적이 투영되어 있다. 특히, 《醒世恒言·第十九卷·白玉孃忍苦成夫》에서 白玉孃이 헤어진 남편과 재결합하는 희극적 결말에는 여성의 염원이 녹아 있다기보다 남성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 여성인물은 자신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남편 程萬里가 張萬戶에게 고자질한 것 때문에 그녀는 남편과 헤어져 20여년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왔다. 그녀는 張萬戶에게 포로로 잡혀온 程萬里的 인물됨을 애석히 여겨 고향으로 도망치길 권유했다. 도주를 권유하는 그녀를 장만호에게 고자질하여 程萬里는 그의 두터운 신임을 사게 되었고, 그 덕분에 50세 생신을 맞은 元의 장수에게 축하 선물을 전해주는 差使가 되어 본국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남편이 도주한 뒤, 白玉孃은 비구니가 되어 수절을 지킨다. 20여년 후 남편이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나 白玉孃은 이미 속세의 욕망을 끊었다며 거절한다. 다

시 합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여성의 도덕성을 더욱 고매하게 형상화시키고 있으나, 그것은 곧 남성의 소유물로 귀속되는 서사과정에서 남성들이 심리적 만족감을 획득하려는 심리를 읽어낼 수 있다.

明代는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 여성의 정절을 중시하였기에 정조관념이 만들어낸 여성 억압구조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설령 정의로운 기상을 가진 여성일지라도 육체적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²⁷⁾ 여성의 덕행과 지혜는 모두 수절과 병행할 때에만 비로소 가치가 빛났다.²⁸⁾ 정조관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여성의 생명까지 수단화하는 문학적 수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警世通言·第二十二卷·宋小官團圓破篋笠》에서 병든 남편과의 의리를 지키는 義婦 형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서술자는 여성의 자살이라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²⁹⁾ 한편, 정조관념은 애초에 남성의 지배이익과 관련한 것이었기에 그것이 남성의 이익과 충돌하는 상황에선 더 이상 요구되지 않았다. 남성의 출세를 위해 여성은 정조관념에 있어서도 유동적인 태도를 취해야 했다. 《拍案惊奇·第六卷·酒下酒趙尼媼迷花 机中机賈秀才報怨》에서 賈秀才의 아내 巫氏는 趙尼姑의 계략에 말려들어 卜良에게 간음 당하자 즉시 자결하려 한다. 賈秀才는 자신의 관점에서 아내의 죽음이 초래할 불이익을 예상하여 자결을 만류한다. 아내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汚名을 얻게 되어 자신의 앞날에 악

27) 《醒世恒言·第三十六卷·蔡瑞虹忍辱報仇》 참고.

28) 《醒世恒言·第十卷·劉小官雌雄兄弟》, 《喻世明言·第二十八卷·李秀卿義結黃貞女》 참고.

29) 宜春의 자살 소동은 그 좋은 예이다. 宜春은 친정아버지가 병든 남편을 무인도에 버린 행동을 질책하면서 찾아서 데려오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일언지하에 거절하자 그녀는 배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으려 한다. 한편, 남성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여성 자체를 수단화하는 경향도 보인다. 《警世通言·第二十一卷·趙太祖千里送京娘》에서 京娘은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 趙公子에게 일생을 바쳐 보필하려는 심정을 밝힌다. 그러나 趙公子는 그녀를 도운 이유는 남자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였다면서 경냥이 이러한 발언으로 자신의 인격을 모독했다며 대노한다. 여성의 보은의 의지는 그것 자체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의로운 정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보조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 염려했다. 남편의 공명심 때문에 巫氏는 정조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택하지 않는다. 남성의 이기적 목적 아래 정조관이 탄력성을 보이는 문학적 수법에서 남성중심적 서사논리가 지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 욕망 충족의 대상

남녀 간의 낭만적이고 격정적인 사랑을 다룬 애정고사에서 보이는 남/여성의 성역할은 당시 유교사회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로 자유 혼인을 인정받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데, 남성은 겁이 많고 감성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반면 여성은 이성적 판단력을 지닌 과단성이 있는 인물로 형상화된다.³⁰⁾ 자유연애를 성공시켜 결혼으로 이끄는 주도적 힘은 여성에게서 나오는 반면, 상대남성은 여성이 봉건혼인제도에 저항하는 동안 잠시 사라진다. 이에 관해 기왕의 연구 성과는 여성을 진부한 예교질서를 타파했다는 점에서 극도로 칭송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 전체를 통괄하고 있는 남성적 서사논리에서 봤을 때, 이것은 실제의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재현의 서사라기보다 남성의 기대와 욕망의 투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적극성을 띤 여성인물은 사랑을 결혼제도 안으로 흡수시키려는 남성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된 인물형상이다.

자유혼인을 추구하는 여성인물은 예외 없이 모두 남성의 미적 요구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미모를 지니고 있으며, 성품도 온화하다. 이처럼 여성인물의 예술적 형상화는 남성의 애호와 시선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자유혼인을 염원하는 남성들의 욕망은 작품의 주제의식으로 발전하며, 그것은 남성이 아닌 여성의 의지를 통해 부각된다. 《警世通言·第二十九卷·宿香亭張浩遇鶯鶯》에서 鶯鶯은 결혼당사자의 의사가 완전히 무시되고 “아버

30) 《醒世恒言·第8卷·喬太守亂點鴛鴦譜》, 《醒世恒言·第14卷·閻樊樓多情周勝仙》, 《醒世恒言·第28卷·吳衙內鄰舟赴約》, 《警世通言·第29卷·宿香亭張浩遇鶯鶯》 등을 들 수 있다.

지의 명, 매과의 딸”에 의해 주도된 봉건혼인제도를 비판한다.³¹⁾ 자유연애가 금지되었던 사회적 상황³²⁾으로 인해 鶯鶯은 張浩와 사랑하였으나 가족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공개하지 못한다. 망설이던 동안, 張浩는 삼촌의 강력한 압박으로 魏氏 집안의 여성과 결혼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남성은 위기에 직면해서도 한마디 의견도 내세우지 못하지만, 鶯鶯은 자유연애를 인정받기 위해 과감한 행동을 취한다. 먼저 張浩와의 사랑을 부모님께 알려 승낙을 받아내고, 다음으로 사랑의 진실함과 결혼맹세를 상세하게 적은 訴狀을 작성하여 관아에 보내어 자유혼인의 정당성을 밝혔다.

“첩이 들은 말을 아뢰옵니다. 「여자는 중매인이 없으면 시집갈 수 없다.」 이 말은 비록 지론이긴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무엇인가요? 옛날 文君은 司馬相如를 사랑했으며, 賈牛는 韓壽를 사모했는데, 이 두 여인은 모두 사랑의 도피를 했다는 명성은 언뜻지만, 중매인이 없었다는 비난은 받지 않았습시다. 무릇 사랑을 성취한 사람들은 靑史에 그 令德함이 기재되고 편장에 기록되어, 후인들로 하여금 그 행위를 이어받게 하여, 용속함을 면할 수 있었습시다. 첩은 어려서 서쪽에 사는 이웃인 張浩의 재능으로 얻은 명예를 흠모하여 이미 그와 해로할 것을 남몰래 허락하였습시다. 약속을 이미 정하였고 변하지 않기로 맹세했습시다. 그런데 지금 張浩가 갑자기 이전의 약속을 저버려 첩으로 하여금 땅을 치며 대성통곡하게 하나 어디 고할 곳이 없습시다. 첩은 듣건데, 규칙은 대법을 설정해 놓고 예는 인정에 따른다고 합니다. 만일 判府에서 명확한 판결을 하여주시지 않는다면, 외로운 몸은 평생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수치를 무릅쓰고 판관께 무례를 하오니, 큰 자비를 내려 판결해주십시오! 삼가 진술 하옵니다.”³³⁾

31) 봉건제도의 가장은 가족 구성원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집안의 모든 일을 결정하였다. 그들은 자녀의 결혼을 결정하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자녀를 징계하였다.

32) 서양선교사 마테오리치(1583~1610년)의 보고에 의하면 “결혼계약은 때로는 당사자의 의사가 참조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들의 동의 없이 양가 부모에 의해 맺어졌다. 사회적으로 상류계층에 속하는 젊은이는 같은 계층 내에서 그것도 동등한 지위이어야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었다.” R. H. 반 홀릭, 《중국성 풍속사》 p.341 참조.

이처럼 鶯鶯은 ‘禮는 人情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봉건예교의 헛된 명분의식을 비판한다. 訴狀을 본 陳公은 이들의 애정이 진실하다는 점에서 혼인을 허락한다. 여성이 종속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봉건혼인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시정해나갈 것을 요구한 당당한 행동은 유가사상이 남성들에게 곡직을 분명히 가려 불의에 용감히 맞설 것을 요구했던 것과 흡사하다. 여성은 남성을 대신하여 유가적 가치관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것의 실질적 수혜자는 남성이다. 한편, 청춘남녀에게 있어 생명에너지의 충동으로 생겨난 격정적 사랑은 친진함과 순수함의 극치이다. 이러한 순수미가 여성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점은 그것이 남성적 서사논리에 의해 수단화되고 있는 서사적 상황과는 별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간혹 낭만적 사랑이 실패하는 경우, 여성의 적극적 의지는 초현실적 공간을 빌어 표현되고 있다.³⁴⁾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한을 품고 죽은 여성은 꿈이라는 환상적 공간을 빌어 사랑을 이룬다. 이러한 환상적 공간은 현실세계에서 추방당한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환상적 세계는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체험하는 공간으로, 사회화될 수 없는 즉 철저히 배제된 영역이다. 이러한 초현실적 공간의 설정을 통해 애정을 성취하는 서사적 상황은 남성 중심적 서사논리에서 봤을 때, 현실사회에서 고난과 불운을 겪기도 했던 남성을 위안하는 기능을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33) “妾聞語云。『女非媒不嫁。此雖至論，亦有未然，何也？昔文君心喜司馬，賈牛志慕韓壽，此二女皆有私奔之名，而不受無媒之訪。蓋所歸得人，青史標其令德，注在篇章，使後人繼其所爲，免委身於傭俗。妾於前歲慕西鄰張浩才名，已私許之偕老。言約已定，誓不變更。今張浩忽背前約，使妾呼天叩地，無所告投！妾聞律設大法，禮順人情。若非判府龍圖明斷，孤寡終身何恃！爲此冒恥瀆尊，幸望台慈，特賜子決！謹狀。”

34) 《醒世恒言·第14卷·鬧樊樓多情周勝仙》，《警世通言·第30卷·金明池吳清逢愛愛》。

III. 결 론

이상에서 여성적 관점에서 《三言》·《二拍》의 남성 중심적 서사논리를 밝힘으로서 여성인물을 새로운 시각에서 읽어낼 수 있었다. 작품전체를 통괄하는 남성적 서사논리는 여성 내면의 목소리를 배제시키고 여성인물을 남성의 이기적 욕망을 달성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명말 도시사회 여성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三言》·《二拍》은 남성 편향적이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남성적 서사논리는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하여 여성을 부도덕하고 열등한 존재로 형상화하기도 했으며, 여성의 행동 이면에 내재된 여러 가지 심리기제에 무관심했다. 근래, 미국과 중국의 문화학자들은 전통 중국사회의 여성은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행동의 자유를 누렸으며 주체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한다.³⁵⁾ 사실 이런 주장에 동조할 수 있는 흔적은 서사의 행간과 문맥 사이에 녹아 있는 여성의 인생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서술자의 서사논리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그에 편승하여 서사논리가 강조하는 여성성에만 초점을 두었던 과거의 연구시각을 뛰어넘어 전통중국사회의 여성을 상상해야 할 것이다. 화본소설의 여성형상은 당시 여성성의 충실한 반영이 아닌, 남성중심적 의식과 결합한 선택적 반영이었다. 남성중심적 서사논리 이면에 은폐된 편찬자의 의도를 탐구하는 것은 진정한 여성성 복원에 필수적인 선결 작업이 될 것이다. 여성성의 복원과 관련하여, 여성의 목소리를 배제하려고 했으나 서사의 행간에서 묻어나는 여성의 삶의 흔적과 애환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재구성하고, 드물지만 여성의 삶에 관해 문제의식이 있는 작품을 선별하여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여성이 당대사회에 대해 말하고

35) (美)高彦頤, 《閩塾師：明末清初江南의 才女文化》 p.10; 杜芳琴, <婦女研究的 歷史語境：父權制, 現代性與性別關係>; 常建華, <明代方志所見歲時節日中的 女性活動> 참고.

자 했던 바를 밝히고, 텍스트의 범위를 좀 더 넓혀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자유공간과 다양한 여성성에 관한 경험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발굴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³⁶⁾ ‘잊혀진 여성성’을 부활시키는 작업은 당대의 여성, 나아가 당대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여성의 삶을 복원시키는 것은 억압받고 꺾박받은 주변부의 삶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맞닿아 있다.

<參考文獻>

- (清)張廷玉 等 撰, 《明史》(第6版; 北京:中華書局), 1997.
- (明)馮夢龍, 《喻世明言》(臺北:鼎文書局), 1980. (衍慶堂本影印)
- (明)馮夢龍, 《警世通言》(臺北:三民書局), 1992. (金陵兼善堂本影印)
- (明)馮夢龍, 《醒世恒言》(臺北:三民書局), 1995. (金閭 葉敬池本影印)
- (明)凌濛初, 《拍案驚奇》(臺北:三民書局), 1979. (尙友堂本影印)
- (明)凌濛初, 《二刻拍案驚奇》(臺北:三民書局), 1993. (尙友堂本影印)
- 杜學元, 《中國女子教育通史》(貴陽:貴州教育出版社), 1996.
- (美)高彥頤, 李志生 譯, 《閨塾師:明末清初江南的才女文化》(南京:江蘇人民出版社), 2005.
- 李貞德, 梁其姿 主編, 《婦女與社會》(北京: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5.
- 杜芳琴, <婦女研究的歷史語境: 父權制, 現代性與性別關係>, 《浙江學刊》, 2001.01.
- 常建華, <明代方志所見歲時節日中的女性活動>(http://bbs.yxun.net/Archiver.asp?ThreadID=38144)

36) 이러한 연구성과로 蔡祝靑, <打翻醋缸說妒婦—明末清初妒婦文本初探>(http://cc.shu.edu.tw/~gndrshu/meeting/3_5.pdf)를 참조할 수 있다. 이 연구는嫉妬하는 부인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또한, 근래에 명칭시기 여성문학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胡曉眞, <文學與性別明清時代婦女文學>(http://www.ihp.sinica.edu.tw/~medicine/pdf/hu.pdf)

-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잉에 슈테판 편, 탁선미 외 역, 《젠더연구-성 평등을 위한 비판적 학문》(서울: 나남출판), 2002.
- 田汝康 저, 이재정 옮김,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서울: 예문서원), 1999.
- 유향, 이숙인 옮김, 《열녀전》(서울: 예문서원), 1997.
- R. H. 반 홀릭 저, 장원철 옮김, 《중국 성풍속사: 선사시대에서 명나라까지》(서울: 까치), 1993.

<中文提要>

明代衆多短篇通俗小說中, 以《三言》、《二拍》最具代表性, 一般人爲市井生活的眞實寫照。從女性/性別研究的角度來看, 它却反映了以男性的角度或目光來打量的世界和女性。以往的研究視野不太重視男性敘述觀點, 只有在清醒了男性中心的敘述角度之后, 才能够談好女性人物的眞實面目。它缺乏有關女性內心世界的描述, 尤其女性的欲望、意志和痛苦, 之所以我們无法听到女性發自內心的聲音, 乃至无法建構傳統中國社會的女性世界。《三言》、《二拍》的婦女形象, 時而是蕩婦, 時而又是賢妻良母, 時而是貞潔的處女, 時而是娼妓, 這都是以男主人公或男性作者的意志爲轉移, 以他們的欲望和需要作爲衡量和取舍的准則的。與其說這些女性形象的感受與意願是發自內心, 還不如說按男性經驗去規範, 且能滿足男性欲望。并且, 嫉妒、通奸、貪欲等等情節來肆意歪曲女性的整体形象。《三言》、《二拍》所塑造的婦女形象, 体现了男性敘事針對女性的暴力。

주제어 : 《三言》, 《二拍》, 女性形象, 男性敘事, 排除, 專有, 女爲男用.